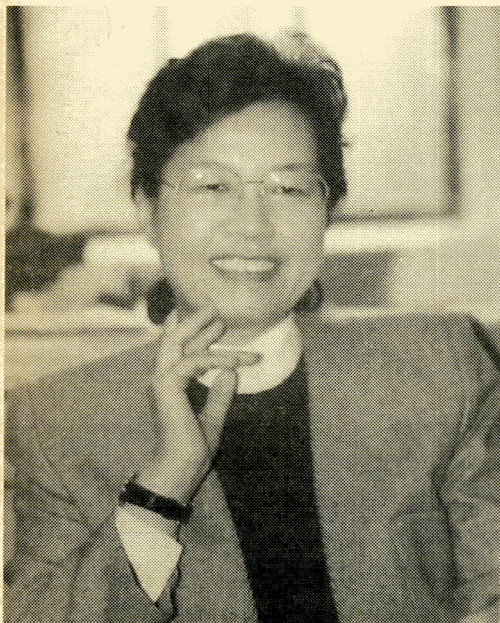


한국여성학회 제10대 회장 조형 교수

# “평등 이념의 기본 다질 때”

## 정치학으로 출발한 페미니스트 사회학자



가 생각됩니다.”

94년으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한국여성학회의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조형(이화여대, 사회학) 교수는 여성학회 10년을 평등 철학의 기반을 다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.

여성학회

“10년 동안 여성학은 상당히 대중화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봅니다. 이제부터는 그 성과들이 정말 얼마나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어 있는 질문이 던져져야 할 때가 아닌

가 생겨나던 1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이른바 ‘페미니즘 전성시대’라 할만큼 여성학이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시기. 이제는 이런 대중적인 성과를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주형 여성학회 신인회

장은 밝혔다.

“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표피적인 수준에서는 너무 빨리 변화해 왔습니다. 그러나 그 변화가 일관된 관련성을 맺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감이 있습니다. 우리에게 ‘무엇이 평등인가?’ 하는 철학에 대한 동의를 이루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법적인 변화만 해도 커다란 원칙이 서 있으면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들도 차례로 따라 변해야 하는데 우리는 일일이 투쟁하는 소모전을 벌여야 했지요.”

여성학회 10년은 ‘그동안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학 그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’이 될 거라고 밝히는 조형 회장은 “법과 운동, 교육 모두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본”에 대한 연구를 강조했다.

조형 교수는 정치학으로 출

발했으나 사회학, 여성학 분야를 오가며 매해 여러편의 ‘평균적인 수작’인 논문들을 발표해 온 비중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. 그는 ‘사회학자인가 여성학자인가’를 묻는 질문에 “분간하기 어렵다. 내 속에서는 모두 섞여 버린 것 같다”고 답한다. 굳이 그의 학문영역을 밝히자면 ‘페미니스트 사회학’ 정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듯하다.

65년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이화여대 정외과 석사, 미국 하바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75년부터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. 89년부터 92년까지 한국여성연구소장을 거친 뒤 93년 6월부터는 학무처 연구 담당 차장을 맡고 있다. 여성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84년 〈또 하나의 문화〉 창립 동인, 〈여성평우회〉 공동대표를 지내 바 있다.